**실로암**

**<요한복음 9:1-7>**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듯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신 듯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 부분을 쉬운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고정불변의 숙명이자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는 그를 그렇게 만든 요인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그의 정체성과 삶은 그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에게서 우리는 분명한 ‘결핍’을 봅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태어나서 한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보통 ‘불행’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핍이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핍이 곧 불행을 의미한다면, 누구나 자기 삶을 불행하다 규정할 근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으로 비칠 것이다” 문예학자 르네 지라르의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각자 자기 혼자만 신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불운을 감추려고 애쓰는 인간들의 모습을 갈파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결핍된 사람이 더 많이 불행하다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없는 그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살아온 송명희 시인의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무엇을 주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결핍 속에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입장에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잘 만들어 주시지요. 당신께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새창조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의 어두움 속에 주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 아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첫 창조의 순간을 연상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합니다. 그가 보냄을 받아 간 곳으로부터 눈에 빛을 얻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40년만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일,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 혼자 일하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셨고, 그 맹인도 일했습니다. 함께 일한 결과였습니다.

꼭 그런 식의 일이어야 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꼭 진흙을 발라야 했을까? 꼭 실로암 못까지 가야 했을까?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일, 그것은 예수님께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흙을 이겨 바른 뒤에는 손을 다시 씻어야 하는 수고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그저 말씀만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일, 그 또한 맹인 입장에선 고되고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부담스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걸음에 얼마나 많은 머뭇거림과 휘청거림과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가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드는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그가 실로암 못까지 가야할 작지만 확실한 이유 하나를 보태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보기 위해서였든, 씻기 위해서였든, 어쨌든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바른 진흙 때문도 아니고, 실로암 물의 효능 때문도 아닙니다. 보냄받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근거로, 그런 죄인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증언을 철회하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25,33)

결국 그 일로 그는 출교를 당하지만, 다시 그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의 눈, 그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행의 원인으로만 보였던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자,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예수님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과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틀 속에 갇혀 지금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눈이 닫혀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39)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았던 ‘나’라는 제목의 찬양에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 나 가진 지식 없으나 /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 공평하신 하나님이 /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 공평하신 하나님이 /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남들 가진 것 자기는 못 가졌지만, 오히려 그 없음으로 인해, 남들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속에만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3:1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깊이 인식한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렘1:6)

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3:12)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렘1:8)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구였고, 진짜로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일 것이고, 누구일 수 있는지를 약속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의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과 만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비로소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딘가로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맹인처럼, 번거로운 일이고 부담스런 길임을 알면서도 왠지 그 길로 이끌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은 채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려 가는 것처럼 실로암을 향해 떠나게 되지만, 결국 거기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며 닫힌 눈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난 아브라함, 결국 그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해놓으신 선물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었나요? 그 여정의 끝,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 본문에 ‘실로암’도 비슷한 의미로 제게는 이해됩니다. 보냄을 받아 간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새 빛을 얻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제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 중심의 동심원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면서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아프게 인식할 때가 많지만, 거기에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을 소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믿음으로 그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의 끝에서 닫혔던 눈이 열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